

눈을 들어 예수님을 바라보라

성경말씀: 요3:14-17

목사: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선포함, 교회에서는 교리(성화) 설교와 복음(구원) 설교가 3:1의 비요한복음 3장: 니고데모라는 바리새인, 율법의 의에 대하여는 흠이 없는 자(빌3:6)

유월절, 십일조, 좋은 부모, 가정 교육, 학교 교육, 치리자(권세), 기도, 제물, 재물, 인품, 도덕
밤에 찾아온 그에게 주님께서 다시 태어남의 신비를 가르쳐 주심(3-4절)

사람이 반드시 물에서 나고 성령에게서 나와 한다. 2번 태어나야 한다. ★★★

사람은 태어나면 누구의 가족의 일원이 된다. 당신도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.

태어나게 한 사람의 본성을 닮는다.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의 본성을 받는다.

당신은 하나님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가? ★★★(가장 중요한 것: 영원히 죽지 않는 것)

니고데모는 유대인들의 선생이었지만 이 사실을 알지 못했다(10절).

두 번 태어날 필요에 대해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서는 광야에서 모세가 뱀을 들어 올린 사건을 언급하시며 믿음으로 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신다. '눈을 들어 예수님을 바라보라'

불 뱀 사건

민수기 21장 4-9절, 민수기: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통과 여정 기록

가데스바네아 사건 이후로 40년간 광야를 떠도는 생활이 시작됨.

이제 거의 다 끝나가는 시점에서 아론이 죽음(20장).

호르 산을 떠나 직접 가나안으로 가려면 에돔 땅을 통과해야 하는데 에돔이 반대함.

4절: 모세는 에돔의 동쪽을 돌아서 북쪽으로 가게 되었고 백성은 지쳐서 불평을 함.

5절: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 불평함, 고전10:9는 그들이 주님을 시험했다고 기록함.

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반드시 들어감을 약속함(15:1).

그들의 삶을 위해 매일 40년 동안 만나를 제공함, 천사의 음식(시78:25)

그런데 복에 겨워서 "이제 만나는 지긋지긋하다."고 원망을 쏟아냄.

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광야의 만나가 곧 생명의 빵이신 그리스도를 나타낸다고 말씀하심.

만나를 거절하는 것은 은혜를, 예수님을 거절하는 것이다. ★★★

성도들에게도 어려움이 닥친다. 그때마다 은혜로 산다.

신8:3, 신8:14-16

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늘의 빵이다. 그것으로 매일을 살아야 한다. 말씀을 읽어야 한다. ★★★

6절: 주께서 곧바로 이들에게 불 뱀을 보내사 많은 이들이 죽게 하였다.

7절: 잘못했습니다. 고백을 함, 이것은 새로운 세대이다. 조상들이 불순종으로 죽는 것을 보고도

8절: 모세가 대신 기도함. 주님의 방법: 뱀 퇴치 약, 뱀 생포, 치료약, 숨는 것 No.

주님께서 뱀들을 곧장 치우지 않고 낯 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라고 하심.

물린 자마다 그것을 바라보면 살리라. ★★★

하나님의 방법

하나님은 역설적인 방법으로 마귀의 것들을 물리치신다.

1.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: 죽음, 아들을 보내사 죽게 한 뒤 다시 부활시킴으로 사망을 이기신다.

2. 성경에서 뱀은 사탄을 가리킨다. 사람의 타락의 장본인이 바로 저주받을 뱀이다.

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면서 죽는 순간에 바로 저 뱀처럼 저주 덩어리가 되었다.

3. 사람은 보는 것을 통해 죄를 지어 사망에 이르렀다. 이브가 선악과를 바라봄, 여자가 보니 그 나무가 먹기에 좋고 눈으로 보기에 아름다우며 사람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이므로(창3:7)

이번에도 보는 것을 통해 죄와 사망의 저주에서 사람을 구출함

1. 모세는 장대를 숨기지 않았다. 모두가 볼 수 있는 자리에 두었다.

예수님도 모든 사람이 보는 데서 십자가 처형을 당했다. 모두가 보려고 마음만 먹으면 볼 수 있다.

2. 모세는 장대를 성막 안이나 뜰에 두지 않았다. 율법과 상관없이 모두가 볼 수 있도록

3. 그 당시 병을 낫게 할 유일한 해결책: 예수님은 세상이 다 알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이시다.

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다(행4:12).

바라보려면 믿음이 필요하다

요3:15, 16, 18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.

뱀에 물린 사람들의 반응: “무슨 소리야, 놈 뱀을 쳐다보라고. 약을 먹어도 낫지 않는데”
“무슨 구원의 길이 이렇게 간단해, 쉬워, 노력도 없이 가능할까? 돈도 안 내고.”

“교회 출석, 십일조, 주일 성수, 거룩한 삶, 기도”

어린아이와 같이 “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으니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. 아멘.” ★★★

사람은 죄와 범법들로 죽은 채 태어난다. 외적인 문제가 아니라 내적인 문제이다.

죄의 값은 사망이다(롬6:23)

아이가 태어난다. 작은 죄인으로 태어난다.

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다. 심판을 받을 존재이다.

그래서 다시 태어나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해야 한다.

그 길은 놈 뱀처럼 십자가에 들린 예수님만을 신뢰하고 그분께로 눈을 돌려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다.

다른 길은 없다. 내가 곧 길이요...(요14:6)

그 날 구원받지 못한 사람: 믿지 않은 사람, 듣지 못한 사람(정도의 중요성) ★★★

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바라보는 것으로 구원받는다.

당신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바라본 적이 있는가? ★★★

스펠전의 회심

1850년 1월 6일, 영국의 콜체스터, 눈이 와서 16살의 사춘기 소년이 교회에 가지 못했다. 가까운 곳의 감리교회에 갔다. 목사가 안 와서 준비도 제대로 못한 성도가 설교하고 있었다. 사45:22 땅의 모든 끝이여, 나를 바라보라. 그리하여 너희는 구원을 받을지어다. 나는 [하나님]이요,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느니라.

이 아이는 지난 몇 달 동안 구원 문제로 많은 갈등을 겪고 있었다.

아버지, 할아버지가 목사였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었다.

이 설교자는 할 말이 없어서 사45:22만 자꾸 반복하였다. “바라보는 것을 배우기 위해 대학 공부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. 아이들도 바라볼 수 있습니다.” 그러더니 이 아이를 쳐다보고는 외쳤습니다. “젊은이, 왜 그렇게 처량하게 보입니까? 젊은이, 예수님을 바라보기 바랍니다.”

바로 그 날 젊은이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회심하였습니다.

바로 그가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 스펠전 목사입니다.

결론

사느냐 죽느냐, 정죄를 받느냐 구원을 받느냐?

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으로 이루어진다. ★★★

예수님은 이 땅에 심판자로 올 수 있었다. 모두 판단하고 멸망시킬 수 있었다.

17절: 그러나 그분을 세상을 정죄하려 오지 않고 구원하려고 구원자로 왔다.

18절: 그래서 그분을 믿는 자는 이미 구원을 받았다. 이미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났다.

히12:1-2, 우리가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달리며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.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십자가를 견디사 그 수치를 떨치하시더니 이제 [하나님]의 왕좌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. ★★★